

소설과 매체 서사 교육의 상호작용적 방법의 모색*

김동환**

<차 례>

- I. 매체언어교육의 경향성
- II. 문학 교육과 매체 관련 교육 내용 검토
- III. 소설과 매체 서사의 원리적 상호작용의 사례들
- IV. 매체언어문화 환경과 소설교육의 방향성

I. 매체언어교육의 경향성

이번 기획주제의 하나인 문학교육과 매체언어문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매체언어교육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매체와 국어교육의 관계는 ‘매체언어교육’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그러한 논의들의 대표적인 논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논의의 성격상 학교현장과 직접 연관성을 보이는 언급들을 선택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요약적 제시보다는 원래의 논의 내용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 본 논의의 전개상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대로 옮겨 본다. 각 논의들의 내용 체계에서 문학이 어떤 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매체언어교육은 매체 언어의 성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아가 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중략) 미디어 교육은 교육과정 내용이나 범위 등에서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살려야 하고, 미디어 현상과 현대인의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문화적, 비판적 기능을 기르는 것과의 교육 내용의 상호성을 높여야 한다. (중략) 미디어 교육과정의 내용이 ‘미디어 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도록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내용상의 어떤 강조점을 가지는 것인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 범주를 설정해 볼 수 있다.

- 미디어 리터러시 입문하기(using media의 기본 리터러시 범주)
- 각종 미디어를 현상적(기능적)으로 경험하고 질적으로 이해하기
- 미디어 장르를 다양하게 경험하기(개별 장르의 수용과 내면화 범주)
- 미디어 장르 간(미디어 텍스트 간)의 다양한 상호텍스트성 경험하기
- 미디어 공간 안에서 소통의 주체가 되어 보기 및 경험 내면화하기
- 미디어의 작용을 메타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기(개인적, 심리적 범주)
-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작용을 이해하고 비판하기(사회적, 문화적 범주)”¹⁾

이 논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핵으로 삼고 미디어 현상의 수용 과정을 내적 계열화를 통해 범주화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가능태를 보여준다. 이 기획주제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장르 간의 다양한 상호텍스트성 경험하기’ 범주를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학교육의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되어 있었다. ‘문학’과 ‘미디어 장르’ 간에 개입되어 있는 거리감 때문이다. 매체언어교육이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는 ‘매체’라는 현상적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학이라는 장르와의 교섭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문학을 당연히 미디어 장르의 하나로 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범주 설정이다.

다음 내용은 문학 장르와의 교섭양상이 드러나 있는 논의의 일부이다.

1) 여기에서 인용한 자료들은 <2008 중등 국어과 심화단계 직무연수(제4기)>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2008. 11>에서 가져왔다. 연수과정은 가장 의미 있는 연구와 교육현장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인기, 매체언어교육의 이해, 위의 책, 244~248쪽.

“•매체 텍스트의 성격 이해

- 매체의 사회적 기능에 따른 뉴스, 보도기사, 칼럼, 사설,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등의 성격 이해
- 대중매체의 상업적, 오락적 특성이 매체 텍스트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이해
- 심미적 텍스트로서 매체 텍스트의 성격 이해(드라마, 영화, 인터넷 소설, 하이퍼텍스트 소설 등)
- 블로그, 미니홈피,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등의 1인 미디어, 대인 미디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
- 인터넷 토론이 지닌 사회적, 공적 소통으로서의 특성 이해 등
- 장르 특성 이해 필요

•매체 언어 교육의 방법 : 몇 가지 사례

- 가. 사진이나 그림을 통한 영상 언어 해석하기 수업
- 나.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토론하는 수업
- 다. 매체 언어의 소통 목적과 수용자에 대한 호소력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수업-광고
- 라. 같은 사건을 다룬 두 신문사의 사설을 비교 분석하는 수업²⁾

위 논의는 매체 텍스트의 성격 이해를 바탕으로 매체 언어의 수용(기호 해석과 전략 분석 등)과 생산을 주요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논의의 성격을 지닌다. 이 기획주제와 관련해서는 ‘소통 목적과 호소력’이나 ‘비교 분석’이라는 원리적이거나 방법적인 개념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문학 장르가 차지하는 위상은 그리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필자는 문학도 역시 소통의 목적(설득, 정보전달, 사회적 상호작용, 감정 표현 등)이 분명하고 호소력을 얻기 위한 전략(다양한 장치들)을 구사하며 다른 텍스트들과의 비교 분석(메시지의 영향력 등의 측면)이 필요한 ‘(문자, 장르)미디어 텍스트’라고 봐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하는 입장이다.³⁾ 이 논문의

2) 정현선, 매체 언어교육의 방법, 앞의 책, 258~269쪽.

기본 전제도 그러한 주장의 한 맥락에 속하는데, ‘문학작품도 매체언어교육에서 대상 범주화하고 있는 미디어 텍스트의 주요한 양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교육현장에서 매체 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의 입장이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 매체 언어교육의 필요조건

1. 매체가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인터넷 매체나 방송 매체 활용하기(예-뉴스 형식으로 말하기, 광고 카피의 문구에서 비문법적인 표현 찾기 등)나 문학적 감수성 및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영상물이나 대중가요 감상하기 같은 활동보다는 매체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2. 매체 언어 교육은 미디어 교육(매체언어교육은 미디어 교육을 국어 교육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의 핵심 영역에 접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미디어 교육에서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영역(매체교육의 길 찾기 : 전국국어교사모임 산하 매체연구부, 2005)

제 작 : 테크놀로지, 유통과 배급, 미디어산업, 접근과 참여

언 어 : 의미, 코드, 장르, 선택, 조합, 테크놀로지

재 현 : 진실을 말하기, 편견과 객관성, 전형화, 해석

수용자 : 목표 수용자 정하기, 수용자 지칭하기, 유포 및 배급, 이용, 이해, 즐거움, 사회적 차이

• 매체 언어 교육 수업사례

가. 매체언어교육의 첫걸음-교과서에 실린 매체단원 재구성하기

-신문읽기/ 텔레비전 읽기

나. 매체 언어교육의 두 번째 걸음-교과서 매체 관련 단원 재구성하기

-비판하며 읽기/ 보조자료 활용하여 말하기 / 읽기와 매체에서 광고 대본 완성⁴⁾

3) 김동환, 문학과 읽기 영역의 통합 교육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 교육 내용 개선 방안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9. 9. 20.

이 논의는 교육현장의 입장에서 매체언어교육의 방향성과 주체적인 접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매체가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구가 아니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면서도 그것을 실체화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저간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교육 수업의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한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 기획주제와 관련해서는 코드나 의미 해석, 재현의 측면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구상하는데 참조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학은 별개의 범주 속에 놓여 있다는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문학 자체를 하나의 미디어장르로 보는 관점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기에 그러하다.

이상의 논의들을 검토하면서 문학이 ‘매체언어텍스트’와 그 생산과 유통, 수용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텍스트임을 살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문학은 조심스럽게 감싸 안아야 하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 온 언어문화 텍스트였으나 이제 강력한 흡인력을 지닌 다른 ‘매체’의 발흥과 융성에 따라 경쟁의 자장 속에 놓이게 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자 또는 장르가 매체로 설정되는 ‘매체텍스트’인 점을 세심스럽게 생각해 볼 일이다. 즉 위에서 살펴 본 논의들과 같이 미디어 교육 논의에서 아직은 문학이 적극적인 접근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방향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문학을 제재로 한 단원에서 매체 언어적 접근이 토대가 되는 활동들이 구상되고 제시되어야 매체언어교육의 실효성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III장에서 제시할 양상들이 문학 단원에서 실제로 제시될 수 있는 활동들의 한 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인 셈이다.

II. 문학 교육과 매체 관련 교육 내용 검토

현재의 문학교육에서 매체와의 관련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 과목의 매체 관련 단원의 편성 내용을 살펴보는 일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몇 가지 교과서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교과서	구 분	해당 내용
A	단원 편성	I. 문학과 문화/2. 문학은 인접예술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2) 문학과 매체
	단원 구성	•문학과 시각 매체의 관계 이해하기-문학과 만화 •문학과 영상 매체의 관계 이해하기-문학과 영화
	주요 활동	•소설 '복덕방'과 만화 '복덕방'의 인물의 모습 비교, 느낌의 차이 말하기 •(설명문)문학과 만화가 어떤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가 •소설 속 인물의 외양이나 성격 묘사 부분을 만화로 그려 비교 평가하기 •영화 속 복선 찾기 •주제 드러내는 대사 찾기 •내레이션 시로 써보기
B	단원 편성	IV. 문학 문화와 인접 문화/2. 문학 문화와 현대 매체 (1) 대중매체와 문학 소통 (2) 전자 매체와 문학 소통
	단원 구성	•대중 매체-대중문학의 이해/ 문학과 영화(현실적이고 사실감) •전자 매체-웹진, 하이퍼텍스트, 전자책
	주요 활동	•원작과 영화의 차이 알아보기 •하이퍼텍스트 문학 감상 쓰기 •전자책 만들기-화명 구성과 배경 음악(불신시대)
C	단원 편성	IV. 문학 문화의 발전/2. 문학 문화의 확장
	단원 구성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매체의 발달과 문학 문화-매체 중심 문학(대중/미디어/사이버) •문학 문화의 확장-광고, 만화, 영화는 넓은 의미의 문학
	주요 활동	•시를 광고로 꾸며보기 •핀타지 문학 이해하기(설명문) •소설 작품의 영화화 사례-수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교과서	구 분	해당 내용
D	단원 편성	V. 문화의 변동과 문학의 대응/4. 현대의 문학과 인접 문화 (3) 문학과 매체 (4) 매체에 따른 문학의 변환
	단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매체의 발달과 문학/통신 문학의 특징-컴퓨터 통신 문학 동호회 • 새로운 매체의 편의성과 매체 변환-인터넷과 문학의 변화 • 인터넷의 매체적 특징/문학의 변화-작가와 독자의 소통, 하이퍼 등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통신 상의 패러디 시 작품 원작과 비교하기 • 하이퍼 텍스트 소설과 이전 소설의 차이 탐구하기 • 소설 이어쓰기
E	단원 편성	I. 문학과 문화/3. 문학의 인접 영역/(2) 다양한 매체 속의 문학
	단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이 소통되는 다양한 양상 • 문학의 다양한 매체의 특징 • 다양한 매체의 문학에 대한 비판적 이해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과 컴퓨터의 관계-컴퓨터를 매체로 한 문학 읽기 특성 말하기 •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 진 문학 작품 감상하고 느낌 말하기
F	단원 편성	IV. 문학의 문화적 소통/3. 현대사회 속의 문학 (1) 다매체 시대의 문학 (2) 인터넷 시대의 문학
	단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 매체에서 다매체로 • 시각예술에서 시청각예술로 • 영화와 문학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들(연극과 영화, 영화와 TV드라마)의 공통점과 차이점 • 광고 문안의 문학적 표현 찾기 • 광고 재구성하여 문학 작품 창작하기
G	단원 편성	X. 한국문학과 문화/3. 문학과 매체
	단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를 통한 문학의 수용 • 매체를 통한 전환 • 매체를 통한 창작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보감〉의 드라마화, 하이퍼 텍스트화 하기 • 영화의 장면을 소설의 서술 방식으로 고쳐 표현하기 • 주어진 만화에 이어질 내용을 구상하여 시나리오로 만들기

교과서들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학과 다른 매체 텍스트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가치, 존재성, 권력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주/부, 우/열 관계로 설정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동들을 보더라도 그러한 관계 인식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문학의 존

제 의의, 현재적 당위성 등을 분명하게 내세워야 한다”⁵⁾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에게 압도적인 무게로 작용하고 있는 다른 매체 텍스트와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가져간다면 학습자들의 ‘교실 밖 인식’은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쟁텍스트의 비교우위적인 매력과 특성이 고스란히 제시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인 요소들, 비교열세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일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문학과 경쟁텍스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텍스트로서 기능하게 하고 ‘공존 관계’의 인식 형성을 도모하는 일 필요할 것이다.

2002년 이후의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고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등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이후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겠지만 문학 영역 특히 소설 양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접근은 보다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른 매체 텍스트들과의 경쟁 속에서 가장 열세를 보이고 있는 장르가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⁶⁾

III. 소설과 매체 서사의 원리적 상호작용의 사례들

매체와의 연관 교육에서 문학은 다른 매체 텍스트와 경쟁 텍스트로서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른 매체텍스트와의 경쟁관계에서 그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거의 전제와 같은 문학의 옹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상호작용의 틀 안에서 원리적인 접근을 통해 이해와 수용이 가능해질 때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용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서사성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매체텍

5) 교육과정의 저변에 흐르는 인식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6) 최근의 출판연감 등을 보면 소설의 전반적인 침체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스트들과 소설과의 원리적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각 사례들은 일단 소설의 주요 요소들과 상호작용이 충분히 가능한 요소들을 지닌 매체텍스트들을 그 존재 양상별로 범주화하여 선정하였다.

1. 서사 요소 1 : 플롯과 인물-광고와의 상호작용

분석 대상으로는 매체텍스트로서 휴대전화 광고인 ‘카이홀맨-전학편’과 외국 광고인 ‘타이거 맥주 광고’를 설정하였다.⁷⁾ 카이홀맨 광고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획 광고로 방영 당시 큰 호응을 얻어 성공적 광고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경우이다. 타이거 맥주는 외국의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영어 상표만 볼 수 있다면 전체를 수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보편적인 텍스트’이다.

이 광고들과 대응시킬 수 있는 텍스트는 ‘입사장애(入社障礙)모티프’를 내포하고 있는 서사물이나 ‘욕망 구조’, ‘변신(變身)모티프’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서사물이면 된다.

먼저 수용자들의 1차적인 반응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대학 1학년생들을 시청자로 삼아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이 광고를 보여주고 그 ‘광고의 목적에 따른 즐거위’를 자유롭게 적어보거나 말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본다.⁸⁾

[카이홀맨 광고]

- 시청자 1 : 홀맨이 전학왔는데, 머리가 커서 비웃음을 샀다.

7) 카이홀맨 광고 : LG텔레콤 홈페이지(lgtelecom.com)-회사소개-홍보자료실-TV광고 보기-65쪽-카이홀맨 전학편.

타이거 맥주 광고 : 포털사이트에서 ‘타이거 맥주’ 광고동영상 검색 가능.

8) 논의의 맥락 상 말로 설명한 텍스트를 제시해야 쓰기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의 소재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으나 논문이라는 형태의 특성상 첨부하여 제시할 수 없어 생략한다.

- 시청자 2 : 홀맨이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있다. 조금 다른 외모 덕에 아이들의 시선을 끈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떠들면서 놀고 있는데 이 때 선생님이 홀맨을 데려온다. 아이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홀맨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과분수의 머리 덕에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고 핸드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찍는다.

[타이거 맥주 광고]

- 시청자 1 : 늙은 할아버지가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남자가 마시고 있는 맥주를 보고 입맛을 다시며 다가가는데 차에 치인다, 치이고 눈을 뜨니 새 등지에서 다시 눈을 뜨는데 갓 태어난 새끼인지 날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 죽는다? 다시 태어나니 어항 속인데 또 다시 밖으로 나가서 죽게 되고? 또 다시 태어나니 우유를 먹는 고양이로 환생, 자기 손을 전자담배에 꼽고 다시 태어나니 젊은 남자로 태어나서 먹고 싶던 맥주를 마시나 뺨뎀에 깔림.
- 시청자 2 : 동양인 할아버지가 맥주 마시는 걸 보다가 사고가 난다. 물고기가 맥주 마시는 거 보고 어항에서 탈출. 고양이가 감전돼서 사람이 되었는데 맥주 마시다가 뺨뎀에게 눌림.

시청자들이 보여준 반응을 살펴건대 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만족스럽지 않다. 해당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광고물로서 무엇을 광고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를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우선 그 바탕이 되는 서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의 광고에서는 휴대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후자의 광고에서는 맥주가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인지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지만 줄거리 파악을 바탕으로 이 광고들의 메시지를 파악해보는 단계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텍스트들의 수용을 위해 서사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해 보았다. 플롯과 인물의 두 요소를 중심으로 접근해 갔다.

플롯의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입사장애모티프’를 설명해 주었다. 한

인물이 다른 환경으로 전입해가고 그곳에 성공적으로 입사하려는 과정에서 장애를 겪기도 하는데 그 단계에서 방해자나 조력자를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해 주자 시청자들의 해석 내용은 현저하게 달라졌다. 휴대폰이 장애를 극복하는 조력자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까지 나아가게 된다. 일반적인 서사의 원리가 광고 텍스트의 해석에 능동적으로 기능하게 되는 셈이다. 타이거 맥주의 경우에는 서사 구조를 ‘갈등 구조’ 대신 ‘욕망 구조’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점과 ‘변신모티프’를 예로 들어주었을 때 구조적 의미의 파악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광고 텍스트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서사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광고 텍스트를 통한 서사 원리의 이해’라는 작용을 바탕으로 삼게 된다. 여기에서는 해석 과정에서보다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게 된다. 즉 인물의 형상과 장애 상황에 대한 분석이 그것이다.

홀맨의 형상은 민담형 인물, 평면적 인물⁹⁾로, 짧은 시간에 구현되어야 하는 광고 텍스트의 속성 상 ‘서사적 지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형상화 방식이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낮은 형상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지체가 이루어지겠지만 성격의 단순화라는 점에서 이후 지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민담의 인물이 매우 단순화된 성격으로 형상화되는 이유를 이와 더불어 설명할 수 있다.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대신 ‘어떤 젊은이’, ‘구두쇠 영감’ 등의 단순화된 설정은 구연 상황에서 청자들이 인물에 관심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구비서사의 특성 상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의 상황도 유의미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이 이해하는 갈등의 양상은 추상적이다. 개인과 사회, 개인과 환경 등으로 알고 있지만,

9) 그동안 우리 문학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 개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소략하고 부주의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시점(4개의 시점)과 인물(평면적, 입체적 인물)의 명칭이나 개념 규정이 매우 불안정하게 정립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줄고, 소설교육에서의 ‘시점’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문학교육학 30집, 2009.

신분제도·학력·젠더 등의 구체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나 ‘환경’의 요소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텍스트에서는 출입문보다 머리가 크다는 점을 ‘환경=장애’라는 점을 예로 들어 갈등 요소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머리가 크다는 요소와 출입문이 그보다 작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의 문제로 환원할 때 어떤 요소들이 그에 해당하였는지를 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타이거 맥주 광고의 경우에는 변신의 계기나 양상에 대한 접근과 그에 따른 욕망 구조의 이해를 목적으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절대적인 욕망이 불가능한 변신도 가능하게 하며 변신의 양상이 서사의 성격 구현(풍자적, 비극적, 희극적, 환상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욕망 구조와 변신이라는 모티프의 결합 양상을 통해 학습자들은 서사성의 한 범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 서사 요소 2—형상화, 시점, 거리 : 만화와 포스터와의 상호작용

전쟁 상황을 다룬 소설의 한 장면을 상정해 보기로 한다. 예들 들어 현행 <문학> 교과서의 두 세 곳에서 볼 수 있는 삼국지와 적벽가와의 연계 수업을 보기로 하자. 다음과 같은 활동이 설정되어 있다.

- ‘적벽가’는 ‘삼국지연의’의 적벽 대전 대목을 판소리로 각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창작 수준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해 보자.
- 만화, 소설 등으로 출간된 ‘삼국지’가 오늘날에도 널리 읽히는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¹⁰⁾

- ‘적벽가’는 중국의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이 타

10) 교과서 F, 126쪽.

령 부분은 원래의 소설에 없는 내용으로 (중략) 다른 민족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체성과 감각을 잘 살려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음을 말해 준다.

- 자신이 알고 있는 고전 문학 작품 중 전쟁을 다룬 문학작품을 생각해 낸 다음 ‘적벽가’와 비교하여 두 작품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이대 전쟁의 양상과 인물의 형상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해 보자.¹¹⁾

여기서 제시된 설명이나 활동을 들여다 볼 때 학습자로서 그 요체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수업을 이끄는 교사로서도 학생들의 활동을 유도해 나가기가 수월치 않다는 반응이다.¹²⁾

이런 경우에 하나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만화라는 매체의 원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삼국지연의> 중 전쟁 상황을 묘사한 대목을 주고 그 내용을 3~4컷 정도의 만화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는 과제를 준다.

만화로 그려가는 과정에서 일단 학습자들은 인물의 형상이나 상황의 묘사에서 난관에 부딪힌다. ‘삼국지연의’에서 해당 대목들을 적출해 보자.

“주태는 양떼 틈에 뛰어 든 호랑이처럼 그 배에 타고 있던 조조의 군사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 죽였다.”

“이날 조조의 군사들이 떨어진 처지는 참담했다.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 죽은 자에 불에 타고 물에 빠져 죽은 자를 더하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¹³⁾

이 장면을 만화로 그리는 일은 우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석을 요구한다. 그려야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늘 그

11) 교과서 G, 47쪽.

12) 이 경험과 관련해서는 다음 책에서 언급한 바 있다. 만화를 활용한 방법에 대한 구상도 밝혀 놓았다. ‘문화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고전의 재생산’이라는 두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이 가능한 양상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내용을 수정하여 이미지 자료와 함께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줄고, 문학연구와 문학교육, 한성대학교출판부, 2004, 331~332쪽, 344~346쪽.

13) 나관중(이문열 평역), 삼국지연의 6권, 민음사, 2002, 110, 140쪽.

렇듯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도 있어야 하고 그의 칼이나 창끝에 나가 떨어지는 군사들의 모습도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위 인용문에서 밑줄을 그어 표기한 인물들은 소설에서는 집단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나 만화에서는 개별화되어야 한다. 한 무리를 뭉뚱그려 그린다 해도 기본적인 개별화는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고우영의 <만화 삼국지>는 빠른 서사 진행을 추구하게 되어 이 개별화가 덜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그 양상은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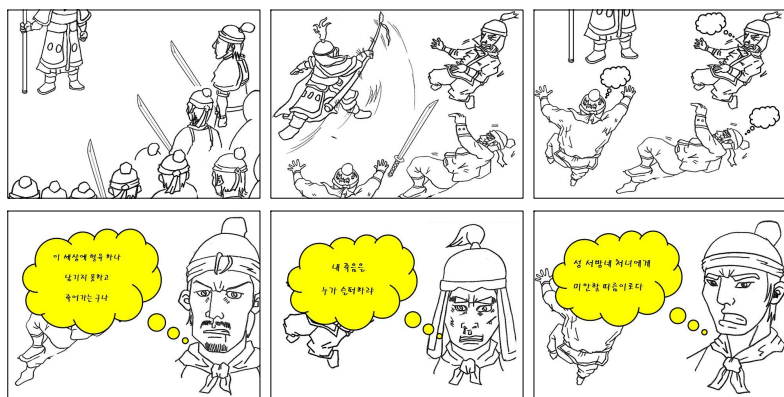


만화적 속성과 원리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학습자들은 주어진 장면들을 만화로 그려내면서 만화적 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일차적으로 소설 속에서는 그 존재가 거의 무에 가까운 군사들을 하나의 의미를 지닌 존재로 그려 낸다.

우선 학생들이 제출한 사례를 제시해 본다.¹⁴⁾

14) 고우영, 삼국지 5권, 애니북스, 2002, 153, 154쪽.

15) 이 사례는 ‘매밀꽃 필 무렵’과 연관된 활동을 수행한 결과이다. 바로 앞 단계에서 배운 ‘매밀 꽃 필 무렵’의 인물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는 상호텍스트적인 설정을 한 경우이다. 보다 구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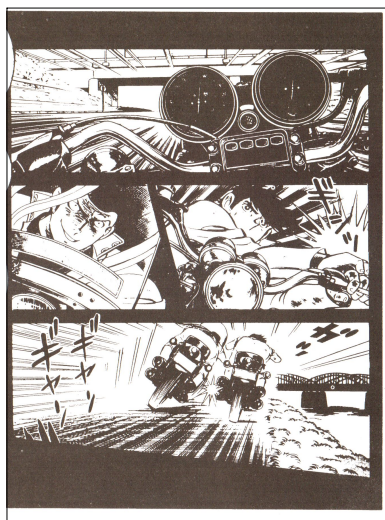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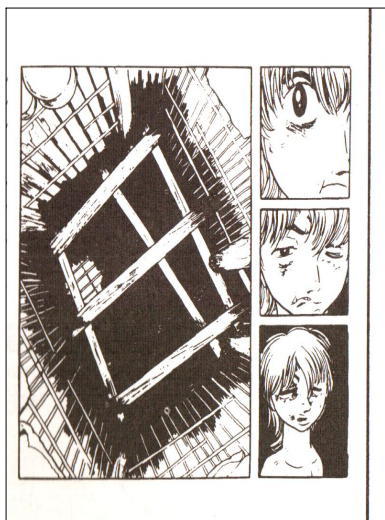
왼쪽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장면을 만화로 그려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단 ‘조조의 군사’라는 집합적 존재를 개별적인 존재화해야 함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만화의 기본 속성의 하나인 말풍선을 생각하게 되고 세 번째 그림을 구상한다. 이어 아래 줄의 컷처럼 군사 개인들의 ‘말’을 만들어냄으로써 과정을 완성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삼국지연의>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적벽가>의 ‘창의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가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 영웅 중심의 시각에서 군사 하나하나의 삶과 개인사의 시각으로 전이되는 것이며 그 결과가 ‘군사설움타령’같은 부분의 창출로 이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만화가 단순히 활동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기왕의 수업에서는 ‘만화로 그려 보는 일 자체에 만족’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¹⁶⁾ 만화와 소설의 표현 방식의 차이 정도가 도달할 목표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생기게 되는 의미와 재현의 문제이다.

이 차별성은 형상화 및 시점의 문제와 연관되며 소설에서의 형상화와 시점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가져다 줄 수

16) 소설과 만화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 A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습자들이 인물의 모습을 비교하고 그 느낌을 말하거나 ‘그림이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글로 보완·처리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있으며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호원리적인 작용의 양태로 보기에 충분하다. 즉 소설에서의 시점의 역할과 효과를 만화와의 작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시점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화에 대한 수용 태도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만화의 시점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지만 다음 경우를 본다면 교육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만화들인 위 자료들 중 왼쪽은 ‘자살’을 감행하는 장면에 해당하고 오른쪽은 폭주족이 폭주를 시작하는 장면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시점의 변화가 흥미롭다. 두 경우 모두 관찰과 주체의 시점이 동시에 구현되고 있다. 왼쪽은 독자가 자살하려는 사람을 객체로 관찰하는 시점에서 독자가 주체가 되는 시점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오른쪽은 첫 컷에서 독자를 폭주의 주체로 인식하게 하는 시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만화의 중독성이나 감염성의 위험에 대한 교육 내용의 설정이 매우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만화의 세계로 빠져 들게 되는 이유를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존재하는 학습자 또는 향유자의 태도

는 매우 다르게 될 것이다. 매체언어교육의 한 방향성은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포스터’의 경우를 예로 들어 시점과 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다음은 얼마 전 상영된 영화 <님은 먼 곳에>의 포스터이다.¹⁷⁾



포스터는 기본적으로 상영될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그 정보의 구성 방식은 소설의 그것과 매우 다르면서도 유사하다. 이를 소설의 스토리와 플롯의 관련 양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필자는 스토리와 플롯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스토리의 내용 요소(가정) : A1 A2 A3 A4 …… A21, A22 ……A97, A98, A99, A100

플롯 1 : A1, A3, …… A22, …… A98 → 메시지 1

플롯 2 : A97, A98, A99, A 100, A21, A22 …… A1 → 메시지 2

플롯 3 : (A1, A2) A21, A22, A97, A100 → 메시지 3

⋮

17) 2008년 7월에 개봉되었으며, ‘15세 관람가’ 등급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스토리를 구성하는 내용요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되거나 배제되어 하나의 플롯으로 조직되게 된다. 즉 정보의 배제와 선택에 의한 조직이 플롯이 되므로 하나의 스토리에 다른 플롯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주제도 달리 존재하게 된다. 이때 정보의 선택과 배제의 기준으로 창작 주체의 의도와 시점을 상정할 수 있다. 의도와 시점 중에서는 시점이 보다 확정적 원리가 된다.

위의 포스터들은 스토리와 플롯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텍스트이다. 즉 영화의 내용과 포스터의 내용이 각각 스토리와 플롯에 대응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주요 인물의 모습들도 원 영화에 나오는 여러 장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했으며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각 포스터를 통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은 관객들이 전경화하게 될 스토리라인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각 포스터가 드러내는 메시지도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 포스터 생산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원 영화의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정보들)에서 필요한 것들만 선택하여 제시하게 된다.

또한 이 포스터는 소설과는 달리 선택된 요소들을 시간적이 아닌 공간적인 조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거리(distance)’ 개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스터를 놓고 볼 때 여성이 제일 앞에 배치되고 두 남자가 뒤에 배치되는데 첫 번째에 비해 두 번째는 두 남성의 위치도 선후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인물을 대하는 서술자(제작자)의 거리감이 드러나는 셈이다. 이 거리감은 인물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건 자체,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도 작동된다. 세 번째 포스터는 ‘왕의 남자의 감독’이라는 정보를 보다 중요하게 배치하여 관객과 영화요소 간의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편집이라는 기술적 요소의 기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포스터를 통한 스토리와 플롯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다시 포스터의 해석이라는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포스터는 영화 속의 정보들을 일정한 의도 아래 선택하고 배열하는 것이며 그 배열 방식에 따라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점, 포스터를 통한 스토리의 전경화가 이루어진다

는 점 등을 이해하게 된다면 상호작용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3. 서사 요소 3—서술자, 묘사 : 사건과 기사의 상호작용

앞서 살펴 본 연수 자료에서 다루는 매체 텍스트 중에 신문기사는 매우 중요한 양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신문기사는 매체언어텍스트의 교육 내용에서 핵심의 하나로 거론되는 ‘비판적 리터러시’의 대상으로서 조건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교과서 단원들에서도 다양한 매체에 담긴 ‘이야기’를 신문기사화 하는 유형의 활동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문기사화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의견’, ‘정확성과 공정성’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정보의 재조직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리의 문제는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그 맥락을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이야기’는 시대적·사회적 맥락을 중시해서 접근해 가게 되면 그 사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과연 그 시대에서 그러한 사연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한 여성의 재혼에 대한 기대가 사회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의해 매몰되게 되는 사연인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생각은 곧 소설의 주제의식과 맞물리게 된다.

이런 활동을 꾸려보기로 하자. “이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기사를 문을 작성해보라.” 흔히 볼 수 있는 활동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사문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촌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정모씨는 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떠나면서 다음 학기에는 이곳에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가 하숙을 하고 있던 집의 미망인과의 연정이 문제시될 것을 두려워 한 때문이라고 한다. 상대 여성이 미망인이 된 상황이나 여건을 볼 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한 미망인의 뜻에

따라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 여성의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한 유능한 젊은 교사를 이 교장에서 떠나게 한 것이다.”

“슬픈 사연

지난 달 어느 학교 방학식. 아이들은 젊은 교사를 에워싸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연인 즉 그 젊은 교사가 다음 학기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기로 한 때문이었다.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숙집 주인인 젊은 과부와의 로맨스가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한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미혼인 남자 교사로서 앞길이 창창한데 로맨스로 인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젊은 과부로서의 주변의 눈초리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습과 전통도 중요하지만 젊은 남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다.”

두 기사문은 대학 1학년 학습자가 1학기 초에 작성한 것이다. 고등학교 때의 활동 내용을 기억한 것이다. 나름대로 기사문의 성격을 부여하려고 노력한 점이나 사건의 요건을 갖추려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사건으로서의 성격이나 기사문으로서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건 기사로서 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실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드러난다. 그 일차적인 문제는 소설이라는 양식이 지니는 속성에서 비롯된다.

소설에서 정보전달자(서술자)는 옥회이다. 그런데 옥회는 사실성을 중요시하는 기사의 정보제공자로서 결격 사유를 지니고 있다. 옥회는 전형적인 ‘신빙성 없는 화자’이다. 어휘력의 부족과 판단력의 미숙, 거짓말을 잘 하는 습성이 그러한 판단의 근거이다. 그렇다면 그런 화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기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

소설에서 서술자는 여러 요인에 의해 가공된 정보를 제공한다. 시점을 통해 제한받기도 하고 플롯의 원리에 의해 중요 요소를 배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온전한 사건을 재구하는 일이 소설읽기의 주요한 활동이 된다. 그런데 위 기사문들은 그러한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읽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된다. 서술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 활동에서 요체가 되는 것은 옥희가 제공하는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의 구별과 그 처리 방식에 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될 주요 정보는 소설의 내용 상 주관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옥희와의 인터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사의 성격도 사건기사보다는 기획기사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다음은 소설의 서술자에 대한 수업을 받은 연후에 위 작성자(두 번째-여학생)가 다시 제출한 기사문이다. 물론 당시 사회상에 대한 맥락 자료¹⁸⁾도 검토된 이후이다.

“기획 시리즈—우리 시대의 결혼 풍속 : 재혼과 여성의 자기 검열(면담과정에서 추가한 문구)

우리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의 문제는 이제 희소한 가치를 지닌 일이 아니다. 인테리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혼이 빈번하고 성공적인 재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그 벽은 높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여성들 스스로가 몸을 사리는 형국이다. 옛 남편의 친구를 하숙생으로 둔 어느 여성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녀의 딸에 따르면 그녀는 옛 남편의 친구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나(이 부분은 발표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추후 인터뷰 형식으로 바꾸기로 함)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없이 구체적인 진척도 없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로 그리 된 셈이다. 우리 사회의 여성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하 생략)”

이 수정된 기사문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서술자의 속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처리 방식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나아진 결과라 판단된다. 묘사에 대한 이해도 보다 깊어졌다. 소설에서의 묘사도 역시 서술자의 시각에서 제한되는 것이며 그 습성(자질)에 따라 본래적인 내용이 변형되는 것이라는

18)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지식’과 ‘맥락’의 구체화 방안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무엇(지식과 맥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경우 새 <고등학교>나 <문학>교과서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실리게 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이 작품과 관련된 지식과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을 하다보면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점을 인지한 셈이다.

이 과정은 소설 양식에 대한 이해와 기사문의 속성이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가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물론 기사문에 대한 이해가 이런 국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처리 방식이라는 측면에 대한 이해 방법으로는 매우 큰 유용성을 지니리라고 판단된다.

IV. 매체언어문화 환경과 소설교육의 방향성

다양하고 강력한 매체언어문화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소설교육은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방향성을 다음 두 가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매체 담론의 원리들과의 소통

앞선 논의의 과정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하였지만 발표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매체 담론들의 원리들과 문학의 원리들의 소통이다. ‘매체를 활용한’이라든가 ‘매체 변용된 문학’이라는 편중된 권력 관계가 드러나는 소통 방식이 아닌 상호 호혜의 원칙하에 소통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매체언어문화가 학습자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문화양식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명분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이 되리라 본다.

서로 마주 놓이는 매체언어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는 주·부관계가 아니라 경쟁 텍스트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될 때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리라 본다. 한쪽 텍스트를 구성하는 원리가 다른 쪽 해석의 근거가 될 것이며, 그 반대도 성립될 것이기에 그러하다. 매체언어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

가 경쟁텍스트로서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향유방식을 터득하게 된다면 상생의 효과를 얻게 되리라 본다. 현재의 <문학> 교과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매체 속의 문학’과 같은 맥락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문학교육에서 흔히 이론으로 불리는 원리와 속성에 대한 접근은 여러 선언적인 견해들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고 본다. 이론의 필요성이 아주 보편적인 작품 해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을 끝으로 공적인 문학교육을 끝내고 이제 홀로 서야하는 대부분의 독자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학능력을 키워주어 이상적이 독자로 남게 하는 일은 문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몫이고 방향성이다. 늘 현재적인 텍스트로 작용하는 매체텍스트와의 접점을 찾는 일은 그래서 미래적인 방향성이 될 것이다.

2. 매체 서사 텍스트로서의 소설에 대한 실천적 인식

대표적인 서사양식의 하나인 소설의 존재 방식은 다양하다. 문자와 인쇄에 의한 전통적인 양상으로 존재하는 방식, 새로운 매체 환경 속에서 변용된 양태로 존재하는 방식, 개인의 향유 과정에서 개별적인 양상으로 존재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이버 소설이나 인터넷 소설·하이퍼텍스트 소설 등의 용어나 블로그 소설, ○○○○ 등은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존재하는 방식들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존재방식에 대한 개별적 탐구가 소설과 매체의 연관적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는 차원에 머문다면 그 교육적 의미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소설 자체를 하나의 매체 텍스트로 보는 인식으로의 실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사는 “설득이나 정보전달, 사회적 상호작용, 감정표현을 목적으로 하여,¹⁹⁾ 다양한 매체언어를 통해 구현되는 양식”이며 소설은 그 대표적인 발현 텍스트로

19) 이 목적들은 7차 개정 교육과정의 용어와 체계에서 제시된 것이다.

보자는 입장이다.²⁰⁾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는 소설은 감정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일부로 그 속성과 위상이 설정되어 있다.²¹⁾ 그러나 이는 다매체 환경에서의 소설에 대한 접근 통로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하게 된다. 앞서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교육과정에서 전통적인 문학의 위상의 유지를 중대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지와도 배치되지 않는다. 즉 소설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허물고 소설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매체 환경에서도 여전히 소설의 위상과 경쟁력을 굳건하게 유지하게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다. 학습자의 의식 속에서 경쟁텍스트와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학을 하나의 매체텍스트로 보려는 인식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실천적으로 교육의 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모색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20) 예를 들어 소설을 통해 어떤 주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창작 의도(설득), 한 시대의 상황에 대해 다음 세대나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정보전달), 사회적인 반향과 독자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소통 방식(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한편 문학 자체를 하나의 매체 텍스트로 보는 것과, 한 예로 ‘미디어로서의 시’에 대한 접근을 주문하는 정현선의 견해는 맥락을 같이 하지만, 텍스트의 외연에 현저히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이상의 <가정>을 텍스트로 삼아 제시한 프로젝트의 내용은 일반적인 시해석의 차원과 본질적인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접근이라 생각한다.

정현선, 다매체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2004, 187~202쪽

매체 텍스트 읽기에서의 외연과 내포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일레인 볼드윈 외, (조애리 외 역)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2008.

21) 이는 7차나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텍스트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문학 텍스트는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염두에 둔 기술이다. 이러한 분류 제시는 본질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본 논문은 2010. 2. 28. 투고되었으며, 2010. 3. 12. 심사가 시작되어 2010.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대행 외(2006), 하이퍼텍스트의 언어문화 이해교육, 서울대출판부.
- 김대행(1998), 매체언어교육론서설, 국어교육 97.
- 김동환 · 이도영 · 염은열 · 서유경(2000),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 김동환(2009), 소설교육에서의 ‘시점’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문학교육학 30집.
- 김중신(2003), 문학과 삶의 만남, 소명.
- 문영진(2007), 동시대의 삶과 서사교육, 한국문화사.
- 박인기 외(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연.
- 박인기 외(2007), 디지털시대 문학의 길, 푸른사상.
- 서유경(2002),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 역락.
- 우한용 외(2009), 실용과 실천의 문학교육, 새문사.
- 이채연 · 최병우 · 최지현(2000), 매체언어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보고서.
- 임경순(2003),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 임경순(2004), 서사표현교육론연구, 역락.
- 전국국어교사모임 매체연구부(2005), 매체교육의 길찾기.
- 전국국어교사모임(2006), 우리말 우리글, 경희교육이이퍼.
- 정재찬(2003),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 정현선(2004), 다매체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 정현선(2007), 미디어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병우(2003), 다매체 시대의 한국문학연구, 푸른사상.
- 최인자(2008), 서사문화교육의 전망과 실천, 역락.
- 최인자(2002), 서사문화와 문학교육론, 한국문화사.
- 황혜진(2007), 고전소설과 서사론, 월인.
- 일레인 볼드윈 외(2008), (조애리 외 역)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2008), 2008 중등 국어과 심화단계 직무연수(제4기).

<초록>

소설과 매체 서사 교육의 상호작용적 방법의 모색

김동환

이 논문은 매체언어교육과 문학교육의 접점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기본 전제는 문학은 본질적으로 미디어 장르의 하나이며 문학 작품은 매체텍스트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문자, 양식, 책, 잡지 등은 문학을 존재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매체로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매체언어교육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영화, 광고, 신문, 드라마 등과 존재론적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의 매체언어교육에서 문학의 위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논문이 제시한 접근원리의 핵심은 소설과 매체서사텍스트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방법이다. 서사모티프의 분석을 통한 광고텍스트의 이해와 그로부터 환원되는 소설의 이해, 만화의 원리를 활용한 서사텍스트의 심도있는 이해, 영화 포스터의 구성 방식을 통한 소설의 윤리 이해와 그로부터 환원되는 포스터라는 매체텍스트의 생산 활동, 사건 기사 쓰기를 통한 소설의 화자에 대한 이해와 그로부터 환원되는 기사 작성에 따른 정보 조직의 실천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매체텍스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교육현장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소설을 설득이나 정보전달, 사회적 상호작용, 감정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 양상의 종합적 발현체로 봐야 한다는 점과 소설 단원에서 주어지는 활동의 하나로 매체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문학능력과 매체텍스트 향유능력이 상승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핵심어】 매체언어교육, 소설의 텍스트적 속성, 소설과 매체서사텍스트의 상호작용의 원리, 문학능력, 매체텍스트 향유능력

<Abstract>

A Research for the Interactional Method between the Novel and the Media-Narrative Education

Kim, Dong-hoan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interface between the literary education and the media-narrative education in concrete and practically.

The basic premise of this article is that literature is a one of media genre and that literary work is a one of media text.

The core of approach in this article is e method of teaching ba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novel and the media-narrative text.

I give a concrete examples as follows ;

an understanding on advertising text by means of narrative-motif analysis and the understanding resolved itself from that, an in-dept understanding on narrative text by utilizing principles of cartoon, an understanding on principles of novel through method of a movie poster and product activity in learning process resolved itself from that, an understanding on narrator in novels through writing articles on episode and carrying out organizing informations resolved itself from that.

We are looking forward to learner's improving their capability on literature and enjoying media text through my attending methods.

[Key words] media language education, property of novel as a media text, interactional method, capability on literature, capability on enjoying media text

【토론문】

“소설과 매체 서사 교육의 상호작용적 방법의 모색”에 대한 토론

류수열(한양대 국어교육과)

0. 매체언어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가 경쟁적 상호 공존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논의에 이견이 있을 리 없습니다. 특히 플롯과 인물, 형상화, 시점, 거리, 서술자와 묘사 개념을 고리로 삼아 두 가지 종류의 텍스트를 상호 연관시키면서 펼친 논의에서 발표자의 타견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망외의 소득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의 몫은 해야겠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서사 혹은 소설에 관한 안목이 발표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토론자로서 무식한 자의 용기를 앞세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은 ‘문학교육과 매체언어문화’입니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은 다소 좁아진 듯합니다. 문학 중에서는 소설, 매체언어 중에서는 매체서사가 초점입니다. 결국 ‘소설교육과 매체서사문화’ 정도가 논의의 실상에 어울리는 제목일 듯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논문을 심사하던 버릇 때문이 아니라, 매체언어 교육의 한 경향적 특성을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매체언어 교육에서 가장 현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사라는 것입니다. 과장을 섞는다면 매체언어=매체서사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서사의 비중은 큼니다. 그렇지만 비서사 매체(?) 또한 무시될 정도로 미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령 재현(표상), 이미지와 같은 개념은 서사매체에서도 간과될 수 없지만, 비서사 매체(?)에서 더 긴요하게 작동되는 요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에서 소설과 매체서사는 각각 문학과 매체언어의 한 범례일 따름인지, 아니면 문학에서의 소설, 매

체언어에서의 서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서론에서 ‘문학작품도 매체언어 교육에서 대상 범주화하고 있는 미디어 텍스트의 한 양상’임을 논의의 전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론에서 문학이 그 생산과 유통, 수용 과정에서 매체언어텍스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미디어 텍스트>문학’이라는 형식으로, 후자는 ‘매체언어 텍스트 \Leftrightarrow 문학’이라는 형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지요. 물론 둘 다 성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체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논의에서 두 가지 개념을 구획하지 않고 쓰다 보면 논리상으로 착종이나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요?

3. 현행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단원과 활동을 바탕으로 “문학과 다른 매체 텍스트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가치, 존재성, 권력 등의 요소를 중심으로 주/부, 우/열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자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양자의 상호작용이라는 논의의 키워드에 근거를 두면 당연히 이러한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과서가 ‘문학’인 한은 이런 관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요? 혹 미디어 교과서에서라면 당연히 그 관계는 역전될 테지요. 과연 두 텍스트를 대등하게 어깨를 겨루고 있는 형국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전체를 일관하는 구도인지, 아니면 그 구도를 이루고 있는 한 국면이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4. 세 가지 상호작용의 사례들을 통해 광고, 만화, 포스터, 서술자, 묘사 등의 개념으로 매체언어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보여주면서 밝힌 여러 가지 원리들은 타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호작용임은 분명하지만,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여러 가지 속성적 장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광고 등의 매체언어에 접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래서 이러저러한 소설적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뜻인지, 그도 아니면 매체언어를 활용하면 이러저러한 소설적 요소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효율적일 수 있다는 뜻인지 불명확한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 텍스트와 매체언어 텍스트가 상호 작용을 하고 상호 경쟁을 하는 구도는, 이전의 어떠한 구도를 대타향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논의 내용에 대해 이해가 깊지도 않고 이 방면에 대한 안목도 부족한 토론자가 무지에서 비롯된 용기를 앞세워 던진 질문이라 여겨 주시고, 오독이 있더라도 그것이 또 창조적 오독일 수 있다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